선방마다 구도 열기… 출·재가 따로 없다

간화선에서 조사선 공부법으로

넓은 의미에서 조사선은 선종의 여러 조사들이 전한 선을 가리킨다. 여래선이 혜능선사의 남종 창립 이전 중국에 전래된 인도불교의 선법을 가리킨다면 조사선은 육조혜능 선사가 세운 선법을 가리킨다.

언설과 이론, 사변을 중시하는 여래선과 달리 조사선은 언어 문자를 초월하여,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격외도리를 말하는 특징이 있다.

조계종은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일컫는 조사선의 간화선법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출·재가 수행자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선방에서 조차 제3수행법을 공공연히 북인하는가하면, 간화선을 버리고 남방수행법을 찾는 스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선의 한 방편으로 확립된 간화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를 가능하게 하는 선문답과 지도점검 등 조사선의 공부과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선(禪)을 공부해 본성을 깨닫기로 결심하는 '발심',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가 법을 묻는 '참문(參問)', 선지식의 대답을 듣고 생긴 의문을 해결하려는 '참구(參究)', 참구의 결과 해답을 얻어 선지식을 찾아가 답을 확인하는 '감변(勘辨)' 과 '인가(印可)' 등 전통 수행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명선원 회주 대효 스님은 "조사선의 수행법은 화선, 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문답법이라는데 보편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가자 안거 · 용맹정진 붐

매년 여름과 겨울, 3천여 스님이 안거수행에 들어가는 결제를 본받아 재가자들의 참선 수행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여름과 겨울 3개월간 실시되는 안거 때면 3천여 명의 재가자들이 일제히 선방에 방부를 들인다. 매주 또는 매달 정기 철야참선을 하는 재가불자들도 늘어나 스님 못지 않는 용맹정진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시민선원은 재가자 안거수행을 하고 있는 30여 곳을 포함한 50여곳. 매달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불자들은 1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생겨난 20여 사찰수련회 동문회에서 정기 참선을 하고 있는 회원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참선이 스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보림회 전홍근 총무는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과 이로인한 이혼 등 가정붕괴로 정신적인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재가자들의 참선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어록 공부모임도 늘어

선사들의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판단아래, 선어록을 공부하는 모임도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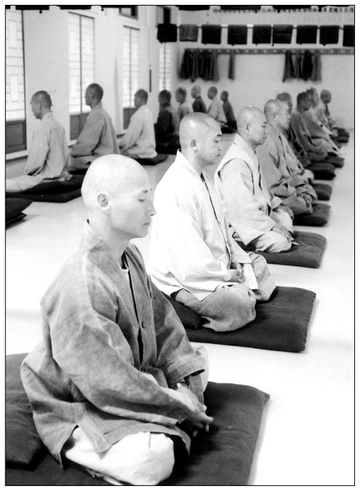
현재 선어록을 강의하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강남포교원, 안국선원, 우곡선원, 무심선원 등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선어록연구소는 교학적인 차원에서 강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선어록 공부는 선어록 해설과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고, 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 체험을 지도해 주는 특징이 있다. 깨닫는 일이야 확인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록 공부는 이제 참선 수행자들의 인기있는 공부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행체계 확립-대중화 과제

이러한 한국 선불교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간화선 수행의 제반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조사선의 수행법과 문답법, 점검체계 등을 바르게 파악,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풍토의 문제점과 해마다 조계종 90여 선방의 2천여 수좌를 비롯 천태종, 태고종 소속 스님 등 3천여 스님들이 '화두(話頭)'를 들고 안거(安居) 수행에 들어간다. 이에 뒤질세라 3천여 재가자들도 전국 30여 시민선원에서 안거 수행을 하고 있다. 평상시 전국 50여 시민선방에서는 직장인, 주부 등 재가 선객으로 붐비고 있으며, 사찰수련회동문회 회원들의 참선 붐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미얀마 등 수행문화가 일반화 되어 있는 남방 불교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수행 열기다.

그동안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선지식 및 지도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문답식 법회와 정기 점검, 선어록 공부 등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방편을 극복하고 조사선의 다양한 수행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근대 한국 선불교의 조사인 경허선사 이후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한국 선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 · 재가 수행자들의 정진 열기가 뜨겁다. 사진은 법주사 총지선원(사진 위)과 수선회의 입선 모습.

"주말 철야참선으로 즐거운 인생"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전통사찰이나 시민선원, 재가 수행단체에서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쁜 일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가 불자들은 철야 참선을 통해 1주일간 미뤄둔 선정 수행에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활기차게 맞이한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울 화계사, 보림선원, 미타사, 수선회를 비롯해 부산 해운정사, 통도사 극락선원, 대전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부석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철야참선법회를 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해인사 백련암(매월 넷째 토)과 원당암(매월 첫, 셋째 토), 선학원 중앙선원, 서울 법련사, 통도사 분당포교원 장안사, 대구구도회 등이 매달 1, 2회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곡선원, 범어사, 공림사, 대전구도회, 법륜사, 홍련암, 장안사도 매월 1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주말 철야참선 하는 곳

단 체	시 간	연 락 처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부석사	매월 마지막 토	(054)633-3464
회계사 선우회	매주 토	(02)900-4326
보림회	매주 토	(02)914-6187
수선회	매주 토	(02)517-3108
우곡선원	매월 첫째 토	(02)2055-3111
선학원 선정회	매월 셋째 토	(02)732-3327
통도사 극락암	매주 토	(055)382-7083
학림사 오등선원	매주 토	(042)825-0515
미타사	매주 토	(02)662-4736
법련사	매월 마지막 토	(02)733-5322
공림사	매월 셋째 토	(043)833-1029
대구구도회	매월 마지막 토	(053)654-8533
대전구도회	매월 셋째 토	(042)527-0559
법륜사	매월 둘째 토	(043)878-6122
홍련암	매월 첫 · 셋째 토	(063)263-6072
해인사 백련암	매월 넷째 토	(055)932-7300
해인사 원당암	매월 첫 · 셋째 토	(055)963-9551
범어사	매월 첫째 토	(051)508-3122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주 토	(051)816-2241
장안사	매월 마지막 토	(031)703-7766

마음 깨달으면 마음이 곧 道

금오 스님

유심, 헛된 생각 사회적 병폐
바른 심행이 불도성취 이뤄

시방세계를 꿰뚫어 보고나니(透出十方界)
없고 없다는 것 또한 없구나(無無無亦無)
날날이 모두 그러하기에(個個只此爾)
아무리 뿌리를 찾아봐도 없고 없을 뿐이네(覓本亦無無).

마음은 마치 여의주 같아서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만 깨끗하게 한다면 근심 걱정과 일체의 고통을 여읠 수 있다. 천상천하를 찾아보아도 마음은 자취가 없으나 홀연히 깨달으면 보지 못한 한 물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도가 된다.

"마음의 주인공아, 내가 너를 알면 성인이 되지만 너를 알지 못하면 범부가 되어 생사의 바다에 빠져 모든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혼이 흩어지지 않았으되 죽은 사람이요, 눈은 떴으되 눈 뜬 장님인 것이다. 모든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나를 찾았을 때 이러한 죄와 속박이 풀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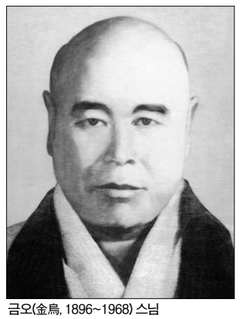
무(無)의 밭에서 자란 무심(無心)은 일체의 어리석은 마음을 앗아간다. 무심은 곧 티끌 한 점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무의 반대편에 유(有)가 서 있다. 유의 밭에서 성장한 유심(有心)은 사사로운 마음, 삿된 마음, 헛된 생각의 뿌리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는 다른데 있지 않다. 유심이라는 전염병에 의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남보다 많이 구하려 하고, 가지려 하고, 빼앗으려 하는 탐욕과 이기심이 본디 극락인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다.

도(道)를 배우려면 먼저 눈 밝은 스승에게 나아가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도업(道業)을 성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도(佛道)를 성취하려고 뜻을 지닌 이는 발심(發心)과 지혜심(智慧心)과 정진심(精進心)과 진실심(眞實心)과 견고심(堅固心)과 정행심(正行心)과 그밖에 정어(正語) 자리행(自利行) · 이타행(利他行) 등 여러 가지 행도 아울러 닦아야 한다.

이제 도를 배우려는 이들이여! 스승을 찾아 참선(參禪)을 놓지 않으면 결정코 성불할 것이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탐진치(貪嗔癡)나 도둑질을 저지르면 거기에 상응하는 축생(畜生)과 가난의 죄업(罪業)이 따를 것이니, 살피고 살피라.

육신의 굶주림은 밥으로 면할 수 있지만 지혜의 굶주림은 오직 도덕으로만 채울 수 있다. 탐심(貪心)을 돌려 보시심(布施心)을



금오(金烏, 1896~1968) 스님

발행(發行)하자. 진심(嗔心)을 돌려 인욕심(忍辱心)을 장양(長養)하자. 치심(癡心)을 돌려 지혜심(智慧心)을 조양(照養)하자. 악심(惡心)을 돌려 선심(善心)을 상행(常行)하자.

단박에 깨쳐야 본성 볼 수 있어

전강 스님

정법 잘못 전하면 후세에 허물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 불교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하는 법인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등등상속(燈燈相續)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만일 부처님의 정법을 조금이라도 잘못 전한다면 후세에 끼치는 허물이 많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분상에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염화시중(拈花示衆)과 가섭미소(迦葉微笑)도 다 망설이다.

대중들이여! 위음왕불(威音王佛) 이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친 자는 모두 천연외도(天然外道)라 했으니, 법을 받은 명안종사(明眼宗師)에게 인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제일이라 하며 묘한 언구문자선(言句文字禪)을 활구(活句)라 하고 학자들을 속이고 있다면 이러한 외도들은 부처님도 구하지 못하리라. 금일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닦는 대중들은 명심할 지어다.

그러면 어떤 것이 활구참선법인가? 모름지기 조사관(祖師關)을 뚫어야 하나니 오직 화두만 잡드리 하되 이치길도 없고, 말길도 없고, 마음길도 없나니, 이렇게 용맹정진해나가다가 직하에 대오하는 것이다. 즉 한 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야 곧 너의 본성을 보느니라.

"일러라. 너의 본래면목을 일러라. 왜 너의 본래면목을 모르는가. 어서 일러라."

이렇게 다그치고 입만 열면 "어느 곳을 향하여 입을 여는가?" 삼십 방을 막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 주장자를 척 빼앗아 들고, "이 방을 한번 이르시오." "오냐, 그 방을 맞고 나갈테니 너도 또한 일러라."

법이란 이런 것이니 여기서 똑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격외장부(格外丈夫)인데 무슨 걸림이 있겠는가?

내가 나를 깨닫는 누진통(漏盡通)은 본각을 매하는 법이 없느니라. 오직 내가 나를 자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인 것이다. 이렇게 대평등 대원융(大平等 大圓融) 이사무애 사사무애(理事無碍 事事無碍)의 원각대지를 증득하고 이 삼계화택에서 색상경계에 집착하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야 하느니라.

마음은 일만 경계를 따라 구르고(心隨萬境轉) 구르는 곳마다 실로 능히 그윽하다(轉處實能幽) 흐름을 따라 성품을 인득하면(隨流認得性)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느니라(無喜亦無憂).

이 게송은 이십이조 마나라 존자가 이십삼조 학륵나 존자에게 설하여 오백 마리의

전강(田岡, 1898~1975) 스님

학을 제도케 하신 게송이다.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법신이요 화장찰해(華藏刹海)다. 깨친 분상에는 무슨 걸림이 있으리오, 오직 인연있는 중생을 위하여 생사해탈의 정법을 전할 뿐이로다.

'心' 옳게 해결 일체만법 통찰

성철 스님

심혜의 눈 뜰때 자성볼 수 있어
화두, 잠들어서도 일여해야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라고 말합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고도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心'자 한 자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돌돌 뭉치면 '心'자 한자위에서 있어서 이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고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 눈에 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보는데 그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하여 공부하는 단계를 보면, 첫째 동정일여(動靜一如) 즉 일상 생활에서 가고 오고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변함없이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여부변 하여야 합니다.

동정일여가 되어도 잠이 들어 꿈을 꾸면 공부는 없어지고 꿈속에서 딴 짓하며 놀고 있는데, 꿈에서도 일여한 것을 몽중일여(夢中一如)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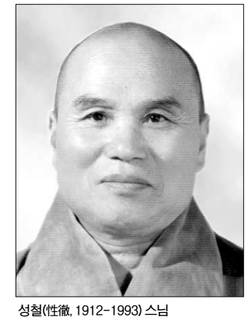
몽중일여가 되어도 앞에서 말했듯이 잠이 깊이 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잠이 꽉 들었을 때에도 여여한 것을 숙면일여(熟眠一如)라 합니다.

숙면일여가 되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백척간두(百千竿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깨쳐야만 그것이 실제 견성입니다.

그런데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숙면일여는 고사하고, 몽중일여도 고사하고 더구나 동정일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견성했다, 깨쳤다고 인정해 달라고 나한테 온 사람만도 수 백명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이 화두란 것은 잠이 깊이 들어서 일여한 경계에서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크게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무슨 경계가 나서 크게 깨친 것 같아도 실제 동정에 일여 하지 못하고 몽중에 일여하지 못하고 숙면에 일여하지 못하면 화두를 바로 안 것도 아니고 견성도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뜬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근본표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잠들어서도 일여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부지런히 화두를 하여 잠이 꽉 들어서도 크게 살아나고 크게 깨쳐서 화두를 바로 아는 사람, 마음 눈을



성철(性徹, 1912~1993) 스님

바로 뜬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서 하나라도 좋고 반쪽이라도 좋으니 실지로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생겨서 부처님 혜명(慧命)을 바로 잇도록 노력합시다.